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OY WHO WENT MAGIC

가제 : 마법이 된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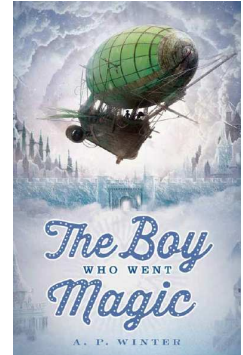
저자 : A.P.Winter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우정과 용기, 새로운 발견에 관한 시끌벅적 판타지 어드벤처 소설

* **따분한 삶이 순식간에 모험과 위험천만한 적들, 마법이 가득한 삶으로 바뀔 어느 소년의 이야기**

하루하루 시시하게 지나가는 일상이 따분하기만 하던 열다섯 살 소년 버트에게 겁 없고 용감 무쌍한 소녀 핀치가 나타난다. 어느덧 정신차리고 보니 한시도 지루할 틈 없이 하늘을 나는 해적 선을 타고 구름 속을 누비며 사라진 나라를 찾아 떠난 모험가가 된 버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모험의 끝에는 버트가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온통 시커멓게 차려 입은 남자가 홀연히 나타나 어느 학교 계단에 조그마한 아이를 데려온다. 그 뒤를 한 무리의 군인들이 다급히 쫓아오고, 수수께끼 같은 남자는 학교에 아이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고는 다시 사라진다. 버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른 채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다. 버트가 펜벨린이라는 나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먼 옛날 마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푹 빠져 산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다 상상 속 이야기고 미신일 뿐이라고 코웃음을 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세련된 기술이 무수히 등장한 시대에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이나 마법 운운한다고 무시할 뿐이다. 하지만 박물관으로 단체 견학을 떠난 어느 날, 버트는 마법은 가짜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우연히 맞닥뜨린 이상한 교수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로버트라는 이름의 그 교수는 금속으로 된 다리를 훑치려다가 버트의 눈에 띄고, 두 사람은 의도치 않게 마법 거울을 건드리고 만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땅, 머나먼 미리노어라는 곳에 숨겨진 신비한 거울을 두 사람이 깨운 것이다. 이 일로 버트의 손에는 독특한 표식이 생기고, 그때부터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버트가 마법 능력을 갖게 된 순간, 보스 왕자가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악하기 그지 없는 보스 왕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버트와 로버트 교수가 깨운 마법 거울을 쟁취하려고 한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버트는 이상한 일들을 잇고 조용히 지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카시우스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나타나 버트를 괴롭힌다. 버트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카시우스는 보스 왕자와 관련이 있는 자가 분명했다. 악착같이 괴롭히는 카시우스에게 쫓기던 버트는 얼마 전 새로 전학온 로버트 교수의 딸, 핀치 덕분에 겨우 곤경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핀치를 통해 로버트 교수가 마법 거울을 건드린 일로 저주에 걸려 위험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버트는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보스 왕자의 지독한 감시와 괴롭힘을 피해 핀치, 로버트 교수와 함께 떠난 버트는 마법 거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비밀 문서를 발견하고, 거울이 처음 만들어진 곳으로 가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힌트를 알아낸다. 그러나 카시우스와 보스 왕자의 추격이 따라 붙고, 세 사람이 펜벨린을 가까스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결국 버트는 붙들리고 만다.

보스 왕자가 그토록 거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서에 기록된 것처럼 거울이 만들어진 곳으로 가면 교수를 사로잡은 저주를 풀 수 있을까? 버트에게 갑자기 생겨난 마법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린 버트를 놓고 간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스터리한 존재와 악당들의 치밀한 계획이 시시각각 버트와 핀치를 쫓아오는 가운데 숨막히는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A.P. 윈터(A.P. Winter)는 글쓰기 석사과정을 마치고 뉴욕에서 전업 작가로 일하고 있다. 유서 깊은 UEA 말콤 브래드버리 메모리얼 장학생(UEA Malcolm Bradbury Memorial)으로 선발되었으며, 글쓰기 강사, TV 엑스트라 출연자로도 활약했다.

제목 : GEEKERELLA
가제 : 괴짜렐라
저자 : Ashley Poston
출판사: Quirk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신데렐라 이야기에 대중문화가 꽉 채워진 재미 있는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신데렐라 이야기와 공상과학이 만났다. 따뜻하고, 의외로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참신한 이야기다.” – 스퀘어 북스(**Square Books**) 서점, 엘리스 스타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데렐라는 못된 계모와 언니들 구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는다.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신데렐라를 지치게 할지언정 예쁘게 차려 입고 파티에 가고픈 마음만은 강렬했던 그녀에게, 동물 친구들과 요정은 짧게나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결과는? 멋진 왕자님을 만나고, 자칫 서로를 찾지 못할 뻔했던 위기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이 긍정적이고 당찬 신데렐라가 현대로 와서 코스튬 플레이(일명 코스프레)에 심취한 괴짜 소녀가 되었다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 주요 등장인물도 이 현대판 신데렐라에 맞게 그대로 등장하여 도와주는 존재들도, 괴롭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면? 이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자 주인공 엘르, 남자 주인공 다리엔 두 사람의 시선으로 전해진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TV 공상과학 드라마 시리즈, ‘스타필드’를 보는 일이 엘르의 모든 삶이었다. 코스튬 플레이를 좋아하던 아빠는 극중 인물들이 입고 나온 복장을 엘르와 함께 만들고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가고, 엘르는 학교 다니라 아르바이트 하라 그렇지 않아도 여유 시간이 없는데 요리며 청소, 온갖 잡다한 집안일을 다 떠넘기는 계모 때문에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두 이복 언니들의 발가락에 페디큐어를 해줘야 한다. 어느덧 지역 최대 코스튬 플레이 축제인 ‘엑셀시콘’의 개막일이 성큼 다가오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출전 기회도 얻지 못할 판이다. 그런데 엘르 앞에 절호의 기회가 나타났다. 엘르를 비롯해 무수한 팬을 거느린 드라마 스타필드가 그 여세를 몰아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영화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극중 캐릭터를 가장 잘 묘사한 코스튬을 뽑는 콘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승리하면, 엘르가 그토록 바라던 엑셀시콘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 엘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다짐한다.

멋진 코스튬을 마련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엘르는 우승을 확신한 채 부푼 마음으로 콘테스트만 기다렸다. 하지만 엘르의 계획을 알아낸 이복 언니가 고이 모셔둔 코스튬을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대회 직전이라 새로운 옷을 만들 틈도 없으니, 이대로 엘르의 오랜 꿈은 물

거품이 되고 말 지경에 이른다. 바로 그때, 엘르가 일하는 푸드 트럭 ‘마법 호박’에서 같이 일하는 또 다른 괴짜 친구 세이지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의상디자인에 일가견이 있는 녹색머리 세이지는 부랴부랴 엘르의 아빠가 예전에 만든 스타필드 코스튬을 솜씨 좋게 다듬어서 그럴싸한 옷으로 재탄생시킨다. 콘테스트 마감 시간이 촉박해지자 두 사람은 ‘마법 호박’의 영업을 포기하고 그 거대한 트럭을 힘껏 밟아 대회장으로 향한다.

엘르처럼 어릴 때부터 TV 드라마 스타필드의 광팬이던 다리엔은 어쩌다 배우의 길을 걷게 되어 눈감짝할 사이에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팬들에게 둘러싸인 스타가 되었다. 드라마 코스튬을 만들고 대회에 나가면서 즐겁게 지내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도를 넘은 팬들의 과도한 사랑에 괴로워하던 다리엔은 곧 영화로 제작될 스타필드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 하나같이 듣기 좋은 칭찬만 하는 와중에, 다리엔은 스타필드의 모든 것을 샅샅이 분석한 블로그에서 아주 냉철하게 자신의 캐스팅에 대해 쓴 소리를 한 글을 발견한다. 너무 엄청난 배역을 맡게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다리엔은 이 글을 쓴 블로그 주인만이 올바른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 글을 쓴 주인공은? 다름아닌 엘르였다.

영화 홍보를 위한 행사이니만큼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다리엔이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세이지가 도와준 덕분에 겨우 대회장에 들어온 엘르는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보낸 다리엔과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흐르려는 찰나, 엘르는 ‘마법 호박’의 주차 제한 시간인 4시간이 임박하여 대회장을 벗어나야만 하는 바람에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다리엔과 헤어진다. 엘르는 이 콘테스트에서 우승하여 엑셀시콘에 출전할 수 있을까? 다리엔은 알 수 없는 복장을 하고 나타나 마음을 흔들어놓은 엘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배꼽 잡는 유머와 신데렐라의 등장인물, 배경, 장치를 고스란히 현대로 옮겨놓은 기막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유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슐리 포스톤(Ashley Poston)은 YA 작가로 『The Sound of Us』(2013), 『We Own the Night』(2015) 등을 발표했다.